

두 번은 없다

-비스와바 씬보르스카(1923-2012)- 폴란드 여류 시인, 1996년 노벨문학
상 수상

두 번은 없다.

지금도 그렇고

앞으로도 그럴 것이다. 그러므로

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

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.

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.

그러므로 아름답다.